

# 주택건설 침체에도 시멘트社 실적 ‘쑥’... 원가절감 등 ‘결실’

3분기까지 쌍용, 한일, 아세아 등 전년비 매출·영업익 ‘동반 상승’ 시멘트값 인상 효과 등 복합 작용 대규모 설비투자 ‘현재 진행형’



시멘트회사들이 주택 경기 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에 있는 한 시멘트공장 전경.

주택 건설 경기 침체, 수요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회사들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며 선방하고 있다.

시멘트값 인상 효과와 주원료인 유연탄 가격 안정, 원가절감 노력 등의 결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아지면서다.

이런 가운데 탄소 중립 등 친환경을 위한 시멘트 업계의 대규모 설비투자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쌍용C&E는 연결기준으로 올해 들어 3·4분기까지 1조318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매출 1조1451억원보다 15.2% (1735억원) 늘어난 액수다.

쌍용C&E는 3분기까지 영업이익도 7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8억원보다 15.6% (106억원) 증가했다.

쌍용C&E 관계자는 “3분기까지 실적은 상반기 수요 증가와 가격 인상 효과

에 힘입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시멘트는 내수 판매량이 5% 정도 증가했고, 유연탄 가격 안정화와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쌍용C&E의 경우 지난해 톤(t)당 평균 7만6652원이던 시멘트값이 올해 3분기엔 8만5235원으로 11.2% 올랐다.

쌍용C&E는 올해 매출 1조9000억원, 영업이익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1조7059억원의 매출과 192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바 있다.

한일시멘트도 올해 3분기까지 1조

3057억원의 매출과 181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동기엔 1조674억원의 매출과 85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벌써 2배를 훌쩍 넘어섰다.

한일시멘트는 내수가 기준으로 지난해(평균) 대비 올해 3분기 현재 시멘트(15%), 레미콘(17.5%), 레미탈(22.7%) 가격이 모두 올랐다.

아세아시멘트 역시 매출(3분기 기준)은 7449억원에서 8864억원으로, 영업이익은 808억원에서 1067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성신양회(매출 7540억→8012억원, 영업이익 223억→391억원)와 삼표시멘트(매출 4962억→6000억원, 영업이익 322억→644억원)도 실적이 지난해보다 나아졌다.

시멘트 전방산업의 하나인 주택시장은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누계 기준으로 전국 주택 착공은 12만5862호로 전년 동기의 29만4059호에 비해 57.2%나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이 지난해 9월까지 약 14만9000호가 착공했지만 올해엔 6만호 정도에 그쳐 지방(약 14만5000→약 6만6000호)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런 가운데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맞추기 위한 업계의 대규모 설비투자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시멘트산업의 설비투자 규모는 2021년 4226억원, 2022년 4468억원, 2023년(예정) 5764억원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0.6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공해·환경·안전 등 환경규제, 자동화·에너지절약 등 원가절감 등 ‘합리화설비투자’가 연평균 35.49%로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경기 불확실성 확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등으로 시멘트회사들이 설비투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게다가 고금리로 인한 자금 시장 불안도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 1위인 쌍용C&E는 앞서 오는 2030년까지 8000억원을 투자해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세아시멘트도 ▲대기 배출 오염 저감을 위한 NOx 배출농도 감소 ▲대체연료 증대를 통한 탄소저감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안전강화를 위한 설비 개조 등 친환경 설비 투자에 오는 2025년까지 53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삼표시멘트는 시멘트 주요 생산설비인 소성로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기존의 전기집진기를 여과집진기로 전환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총 1400억원을 환경설비에 투자할 방침이다.

한라시멘트는 2·3호 예열기 개조에 1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매년 친환경 설비 유지보수에 220억원 정도를 쓰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개방형 혁신으로 지역창업 생태계 건인”

중기부·지방시대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 간담회 대내·외 협의 등 거쳐 구체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경북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대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시대위원회, 대기업 등과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파트너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기사 L4면>

간담회에선 파트너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중심으로 한 혁신센터의 주요 성과를 청취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에 기반한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강원-네이버, 경기-KT, 경남-두산중공업, 경북-삼성전자, 광주-현대차, 대구-삼성전자, 대전-SK, 부산-롯데, 세종-SK, 울산-현대중공업, 인천-한진·KT, 전남-GS, 전북-효성, 제주-카카

오, 충남-한화, 충북-LG가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하고 있다.

빛가람(나주)과 포스코(포항)는 민간 자율형 센터로 별도 운영 중이다.

이영 장관은 “사회적 책임경영(ESG) 일환으로서 대기업이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전략적으로 상호 수요를 충족하는 윈-윈

형태의 새로운 개방형 혁신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건인해 나가야한다”며 “민간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행정적으로 이를 뒷받침 해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개방형 혁신 체계 개편 ▲혁신센터 간 워킹 구축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공동 보육 체계 도입 ▲자생력 강화 등의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

중기부는 이날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대내·외 협의 등을 충분히 거쳐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의 혁신 중소기업이 지방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협력 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중소업계, 지역경제 활력위한 정책과제 건의

중기중앙회 김진태 강원도지사 초청간담회

중소기업계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13건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후 춘천세종호텔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 지사를 비롯해 강원지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성규 강원중기청장 직무대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 건의로는 ▲공동사업 일자리 지원 등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강화 ▲모범 외국인근로자 포상제도 마련 ▲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공예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중소기업제품 ‘협동조합 추천제도 등’ 적극 활용 ▲농공단지 생산품 수의 계약 시 현장확인 절차 개선 등 6개의 현안과제에 대한 집중논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회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이 더욱 어렵다”며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지원과 육성에 지자체가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기보, 기후문제 해결 동참... 국제기구 가입

환경문제 놓고 국제기구 금융부문 협력

기술보증기금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기후문제 해결에 동참한다. 기보는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의 공식 지원기관으로 등록하고 탄소 회계 금융 연합체(PCAF)에 가입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기구 금융부문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보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글로벌 기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시장에 기후변화 대응 시그널을 확산하기 위해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등 공신력 있는 국제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요 글로벌 기후변화 이

니셔티브 가입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UNEP FI는 30년 이상 지속가능한 금융 의제를 발굴하는 등 파리 기후협약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 협약으로, 전세계 506개 회사 및 153개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PCAF는 금융기관, 기업, 비정부기구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탄소 배출량을 측정, 보고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전세계 320여 개 금융기관이 가입해 있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K-소비재 日 수출 가속화

라쿠텐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 소비재의 일본 시장 진출을 추가로 돕는다.

중진공은 15일 서울 목동 중진공사옥에서 라쿠텐그룹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라쿠텐 이치바 초기 입점 등록비 면제 및 컨설팅 제공 ▲일본 현지 물류창고 및 제반 플랫폼 서비스 지원 ▲공동교육 및 전용 판매지원체계 구축 등 플랫폼 입점 판

매부터 현지 물류까지 전자상거래 전반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

중진공은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을 통해 국가별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 물량을 집중하고 대형 물류사를 중개해 해외 배송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현지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해 배송기간 단축, 운송비 절감 등 물류 최적화를 돕고 있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